



오 록 도 행 복 칼 럼

김 은 숙
소설가
경성·부경대 '백년갈바' 운영

최근에 배달의 민족 수수로 인상 철회 사태를 보면서 어릴 때 읽었던 동화 '원숭이 꽃산'이 떠올랐다. 어느 날 오소리가 원숭이에게 찾아와 꽃산을 공짜로 주자, 원숭이는 꽃산이 마음에 들어 덩석 받아 신었다. 꽃산을 신어 보니 너무 편하고 폭신했다. 신발이 다 헤어졌을 때 오소리가 나타나 새 꽃신을 보여주며 이전 더 이상 공짜가 아니라고 했다. 발에 굳은살이 없어져 더는 맨발로 다닐 수 없게 된 원숭이는 꽃신을 사기 위해 자신이 먹을 것을 다 갖다 바치고 오소리의 굴도 청소해주는데 마치 종이 된 것 같은 굴욕감을 맛본다는 이야기다.

우리 생활 깊숙이 파고든 배달앱이 일종의 원숭이 꽃신 역할을 한다면 지나친 비약일까? 배달앱은 이제 음식을 판매하는 외식업체나 소비자의 삶 깊숙이 들어와 벗고 싶어 도 벗을 수 없는 원숭이 꽃신이 아닐까? 코로나 사태가 타지자 외식업체들은 배달이 아니면 더 버틸 방법이 없다고 여겨 너도나도 배달시장에 뛰어들었다. 싫든 좋든 '원숭이

꽃산' 같은 배달앱을 이용하지 않을 수가 없다. 앱에 지불하는 수수료와 광고비,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쿠폰, 배달팁, 리뷰 서비스와 각종 부대비용을 제하고 나면 배달외식사업은 빛 좋은 개살구일 뿐이다. 지주에게 모든 걸



바치는 소작농처럼 배달앱만 살찌우는 게 배달 외식업의 현실이다.

코로나 사태로 골목 식당들이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배달의 민족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배달 수수료를 5.8%나 인상해 '배신의 민족'이란 소리를 들었다. 외식업주들이 청

와대 청원까지 넣어도 꿈쩍 않던 배민은 경기도 지사가 페이스북에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심각한 이때, 배달의 민족 등 배달앱 업체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 이용료 인상으로 과도한 이익을 추구한다"고 지적하자 급세 꼬리를 내렸다. 지자체에서 공공 배

달앱을 개발하겠다는 소식에 배민은 수수료 인상을 열흘 만에 철회했다.

경성·부경대 대학로 인근에서 차킨집을 운영하는 한 사장님은 배민의 갑작스런 정책변경으로 주문 수도 줄고 수입도 줄었다고 했다. 그는 "수수료나 광고비만큼 업주들을 괴

■ 골 목 식 당 주 인 이 털 어 놓 는 민 간 배 달 앱 의 빛 과 그림 자

골목상권 살려줄 착한 배달앱을 기다리며



배민 '수수료 장난'으로 핫이슈 떠오른 공공배달앱

경기 나뉘스룩 민간 배달앱 의존 '소작농' 신세 전락

매출 늘어도 '빛 좋은 개살구' 누군가 고리 끊어주길

보증금 돌려받기 전에 집을 비워야 한다면

대항력 유지되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백보름 변호사의 생활법률

Q. 2년 전 남구 소재 주택에 보증금 3000만원, 월세 30만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살고 있습니다. 이번 달이 계약만기인데 임대인이 보증금은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와야 돌려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미 새로 이사 갈 집까지 계약을 해 둔 상태인데 임대인의 말을 믿고 우선 이사를 가도 되나요?

A.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에게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여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를 수 있게 하는 제

도로,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의뢰인은 임대인의 말만 믿고 그냥 이사를 나와서는 안 되고 임대차가 종료된 후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야 하며, 임차주택의 등기부등본을 확인을 하여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후에 이사를 나와야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시켜 보증금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경우 새로 이사 간 곳의 주민등록 및 확정일자를 받아두실 수 있습니다. 이후 임대인이 계속해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관할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남구청 법률홈터

*법률홈터는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상주하면서 취약계층에게 1차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법률주치의' 제도입니다. 무료 상담 대상은 기초수급자, 다문화가족, 범죄피해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입니다.

“남구 공무원들 감사합니다”

어느 중학생이 보내온 작지만 따뜻한 편지 한 통

중학교 2학년 노해원입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피곤하실 것 같습니다.

저도 개학이 연기되어서 국어 숙제로 여기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잘 몰랐는데 코로나가 타지면서 구청이 정말 많은 일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번에는 무상마스크를 나눠주셨는데 정말 잘 씁니다. 이번에는 신청하면 모든 구민들한테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준다고 하셨는데, 예산 짜고 이것저것 하신느라 정말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행정업무 많이 힘드시죠? 힘내세요. 예전에는 잘 몰랐는데

구민들을 위해 정말 많은 부서에서 일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홈페이지 공지사항만 보아도 다양한 과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저희를 위해 많은 일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열심히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일도 늘어나고 많이 지칠 것 같은데 정말 대단합니다.

직원분들 덕분에 요즘은 점점 나아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저도 저를 위해, 남을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도 실천하고 손도 씻고 다닐게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남구장애인복지관의 작은 기적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보다 어렵다는 취업시장에 근래 코로나19 사태까지 덮쳐 일자리 구하기는 낙타가 아니라 코끼리 바늘구멍 통과보다 어려워졌다. 비장애인도 일자리 구하기가 이리 버거운데 장애인이라 무슨 부연 설명이 필요할까 싶다.

장애인에게 취업은 참으로 어려운 과제 중 하나다. 이 때문에 각자의 자리에서 취업에 성공한 사례를 들을 때면 절로 마음이 통쾌해진다. 그 자리를 얻기 위해 그가 치렀을 역경과 성취의 가치가 얼마나 값진가를 알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아름다운 성공사례를 우리 남구장애인복지관에서 심심찮게 만날 수 있다.

지난해 6월 부산 서구에 위치한 삼육부산병원에 취업한 성태(가명) 씨는 지적 장애인으로 한 가정의 평범한 둘째 아들이다. 뇌출혈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아버지 옆에서 삼시 세끼 챙겨드리며 병간호 하는 일이 그의 일상이었다. 아버지의 투병 기간이 길어지자 형의 수입만으로 가족이 생활하기 힘들어지면서 성태씨는 하루 4시간만이라도 일을 해야겠다고 마음먹고 구직 활동에 나섰다. 하지만 구직은 결코 쉽지 않았다. 그러던 중에 남구장애인복지관의 직업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가 생겼다. 몇 달간의 트레이닝을 거쳐 마침내 삼육부산병원에서 떨리는 면접을 받을 수 있었다.

취업 경험에 없던 성태 씨는 우선 실습(인턴)에 참여하게 되었다. 마음이야 무슨 일든 잘 해낼 것 같았지만 실습 초부터 위기가 닥쳤다. 환자이동 보조와 침대 시트 정리 등 단순한 업무였지만 일을 해 본 경험이 없던 그로서는 업무가 어렵게만 느껴지고 포기하고 싶어졌다. 낮가림이 심해 몸이 불편한 환자들에게 쉽게 다가가지도 못했다. 환자들의 작은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아 자신감도 떨어졌고 체력적으로도 힘에 부치다 보니 감기몸살까지 걸려 잦은 결근으로 이어졌다. 이로 인해 병원 관리자로부터 '채용이 어렵겠다'라는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

그렇지만 평소 성태씨의 가능성을 눈 여겨 본

남구장애인복지관은 남은 실습기간 자신감 회복과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고 그를 지원했다. 성태씨가 복지관 관계자의 조언에 잘 따라준 덕분에 병원 측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조금씩 누그러지면서 마침내 취업을 승인했다. 성태씨는 현재까지도 취업을 유지 하고 있고, 병원에서 인정받으며 근무 중이다. 실습 초반의 상황을 고려하면 믿기 어려운 결과이다.

성태씨처럼 남구장애인복지관의 장애인 취업프로그램을 통해 삼육부산병원에서 일자리를 얻은 장애인이 10명에 달한다. 더욱이 이들 모두는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다. 이들의 성실함 덕분에 병원 측에서는 향후 장애인 채용은 반드시 남구장애인복지관과 진행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장애인 취업의 현실을 피부로 느끼는 필자로서는 '기적'이라는 표현

현 외에 달리 적합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는다. 이런 사례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생겨나다면 더 많은 장애인들에게 취업의 문이 열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아직도 장애인 채용에 대해 많은 선입견과 차별이 남아있다. 또한 여전히 많은 곳에서 장애인들이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차별을 겪고 있다. 실제로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체들은 장애인 직원들이 대체로 성실하고 맡은바 책임감도 크다고 한다. 이제 장애인은 일을 잘 못할 것이라는 편견을 버리고 그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을 발굴하는 것이 국가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대한민국을 포함해 전세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연일 불안과 공포 속에서 생활하고 있어 크게 부각되지는 않았지만 지난 4월 20일은 제40회 장애인의 날이었다. 장애인에게도 사회의 구성원으로 사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보람을 느끼게 하는 것, 이를 통해 차별 없이 비장애인과 같이 일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장애인 복지가 아닐까 한다.

문지영
(남구장애인복지관
직업지원팀장)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종료 임박

□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2020.5월 만료
○각종 규제에 저촉되어 분할할 수 없는 공유토지를 현재 점유상태 기준으로 분할하여 단독으로 소유권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시행기간 : 2018. 2. 9. ~ 2020. 5. 22일까지
▶대상토지 : 2인 이상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 공유자 총수의 1/3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
•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을 특정하여 점유

• 주택법에 따른 복리시설 중 근린생활시설·주민공동시설이 아닌 토지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토지 제외
▶분할신청 :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첨부 서류 있음)

※ 기타 궁금한 사항은 남구청 토지관리과로 문의 바람(☎051-607-4771~5)

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개별·공동)

■ 2020.1.1.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 2020년 4월 29일

■ 신청기간 : 2020. 4. 29. ~ 5. 29.

■ 장소 및 방법 : 방문 및 인터넷 열람

○장소 : 세무1과

○방법 : 열람장소 방문 및 인터넷 열람

※ 개별·공동주택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 이의신청

○접수처

※ 개별주택 : 세무1과

※ 공동주택 : 세무1과, 한국감정원 부산동부지사

○제출방법 : 이의신청서 작성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제출

※ 인터넷 접수(개별·공동주택)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 문의처 : 세무1과 ☎ 607-4921 ~ 4

휴대용 방역소독기 방역용품 무상 대여

관내 주민이나 시설관리자에게 휴대용 방역소독기 및 방역약품(1회 사용량)을 연말까지 무상으로 대여합니다. 방역소독기와 방역약품은 남구보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5일 내로 빌릴 수 있습니다. 대여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책임지며 훼손, 분실 시 수리비 전액 부담 또는 동일제품으로 변상해야 한다. 보건정책과 감염병관리팀 ☎607-6447



우리지역 일자리 알리판

〈2020. 4. 27 기준〉

회사명	근무지	모집직종	모집인원	모집기간	임금조건	연락처
(주)에이티씨시스템	용당동	경리사무원	1명	2020. 4. 24. ~ 채용시	월급 2,000,000원	051-665-8686
광성건설주식회사	용호동	건설 채굴 단순종사원	1명	2020. 4. 24. ~ 채용시	월급 4,000,000원	051-313-9977
(주)에이티씨시스템	용당동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분석가	2명	2020. 4. 24. ~ 채용시	연봉 30,000,000원 ~ 50,000,000원	051-665-8686
(주)태영지엘에스	김만동	도로운송 사무원	1명	2020. 4. 24. ~ 채용시	월급 2,200,000원 ~ 2,300,000원	051-637-7746
리틀하노이 대연점	대연동	주방보조원	1명	2020. 4. 24. ~ 채용시	시급 8,500원	051-610-2031
루체테 용호	용호동	영어강사	1명	2020. 4. 24. ~ 채용시	월급 2,100,000원	010-4926-5768
형제건설	우암동	바닥재시공원	1명	2020. 4. 24. ~ 채용시	월급 2,200,000원	051-621-0140
해피살바타운	용호동	청소원	1명	2020. 4. 24. ~ 채용시	월급 1,795,310원	051-621-5003
영진씨와이(주)	용당동	물류사무원	1명	2020. 4. 24. ~ 채용시	연봉 22,000,000원	051-631-0597
동재피부비노기과	용호동	간호조무사	1명	2020. 4. 24. ~ 채용시	연봉 22,200,000원	051-627-8825

※ 대한민국 모든 일자리 정보(worknet)와 연계

※ 남구 취업정보센터 ☎607-4347 ~ 8 Fax ☎607-4349

부산남구신문

1996년 1월 1일 창간

발행처 부산광역시 남구

48452 부산광역시 남구 못골로 19(대연동)

남구청 대표전화(051)607-4000 편집실(051)607-4077, 4078

부산광역시 남구 홈페이지 : <http://www.bsnnambu.go.kr>

인쇄처 부산일보사 / 월간 <비매물>

본지는 신문윤리강령과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